

1603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과학탐구 능력과 과학관련 태도 분석

성충헌, 정완호

Dept. of Biolog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학습자의 개인차에 따른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인지적 영역인 지능, 인지수준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는 비인지적 능력인 학습자의 성격특성의 차이가 과학탐구 능력과 과학 관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초등학생 681명을 대상으로 성격검사지(이상로)와 김범기·권재술이 개발한 과학탐구능력 검사지 및 교원대에서 개발한 과학관련 태도 검사지를 투입하여 조사한 결과 성격특성이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관련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성격검사는 7개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였으며 그 하위영역은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男向性), 사려성, 책임성, 우월성 등이며 과학탐구 능력은 10가지의 탐구요소이며 각 요소별 3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관련태도는 과학에 관련된 태도와 과학적 태도의 2가지 측면만을 선별 측정 분석하였다.

각 검사의 결과에서 과학 탐구능력은 지역별로, 과학관련 태도는 남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격특성별 과학탐구능력과 과학관련태도는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사려성, 책임성, 우월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격특성이 높은 아동이 과학탐구능력과 과학관련태도가 높았다. 성격특성 중에서 과학탐구능력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사회성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관련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려성이었다. 과학관련 태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p=0.01$) 높았지만 남향성은 과학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04

Comparative investigations of Biological Term in the Textbook of North and South Korea

정병갑, 박홍덕*, 김우갑**

고신대 생물학과, 고려대 생물학과*, 대구 효성 카톨릭 대학교** 생물학과

본 연구는 남북한 생물교과서의 학술용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후에 사용되어야 할 통합 교과서 및 교과과정 정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남한의 교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생물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고 북한의 교과서는 인민학교 3, 4학년 자연교과서, 고등 중학교 2-6학년용 생물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통일 후의 교과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일환으로 우선 학술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